

4. 구조물 보수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53세	직종	건설업	업무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정OO은 1979년부터 약 22년 간 교량의 신축과 보수공사, 도로복개 구조물 보수 등의 작업을 하였다. 2001년 4월부터 가슴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01년 9월 폐암(소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정OO은 1979년부터 3개 회사에서 교량의 신축과 보수공사, 도로복개 구조물 보수, 슈재생(샌딩) 등의 작업을 하였다. 서울지하철의 보수공사, 교량의 보수공사를 주로 하였다. 물량이 적은 경우에 다른 회사의 사업장에서 신축과 보수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당해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에폭시 본드작업이 약 30 %, 시멘트를 이용한 교량의 신축 및 보수 작업이 약 30 %, 균열과 파손된 부분의 철거작업이 약 30 %이며, 기타 10 %는 용접작업, 그라인더작업, 페인트작업 등이었다.

3. **의학적 소견:** 2001년 4월경 가슴통증이 시작하였으며, 2001년 6월 처음으로 기침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세가 동반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차는 증세와 기침이 심해져서 2001년 8월 개인 방사선과에서 단순 흉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한 결과 폐암이 의심되었다. 2001년 9월 S병원에서 MRI 검사와 2001년 9월 S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서 폐암(소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2002년 5월까지 항암치료를 네 차례 받았으며 다섯번째 항암치료를 받기 전인 2002년 5월 9일 사망하였다.

4. **결론:** 근로자 정OO은

- ① 교량의 신축 및 보수공사에서는 석면이 아니라 유리섬유에 노출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추정되지만,
- ② 근로자가 교량의 신축 및 보수공사 이외에 22년 간 지하철보수공사, 건물의 보수 및 철거 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고,
- ③ 25갑년의 흡연력이 있어 흡연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②, ③의 요인 중 어느 요인이 정OO의 폐암 발생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여를 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석면 노출자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수 십배 이상 폐암 발생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석면 노출자가 흡연을 한다면 석면에 의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해 근로자가 22년 간 지하철보수공사, 건물의 보수 및 철거 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면 25갑년의 흡연력과 상관없이(오히려 상가작용을 하여) 정OO의 폐암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